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
문의	국제협력본부(국제협력과)
	신혜수 주무관 (전화: 02-880-8637, 이메일: hyesus@snu.ac.kr)

배포일: 2024.10.18.(금)

유홍림 총장, 국제농업개발기금(IFAD) 총재 접견

-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이 2024년 10월 16일(수)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국제농업개발기금(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, IFAD)의 알바로 라리오(Alvaro Lario) 총재를 접견했다.
- IFAD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과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이다. 라리오 총재는 이날 유 총장과의 만남을 통해 서울대와 IFAD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,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대를 찾았다.
- 라리오 총재는 식량 안보, 기아 문제 해결, 농민 지원 등 IFAD의 역할을 소개하며 한국이 IFAD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언급했다. 우리나라는 1978년 IFAD 가입 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. 라리오 총재는 농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울대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.
- 유 총장은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서울대의 중요한 목표라며,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과 지속가

농발전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활동 현황을 소개했다. 특히 농업 분야의 ODA 사업, 개발도상국 학생 봉사단 파견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IFAD와의 협력을 제안했다. 또한, 유 총장은 서울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발굴하고 학내에 소개하고 있다며, 라리오 총재의 이번 특별 강연을 통해 IFAD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턴십 경험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.

□ 이날 접견에는 장관식 농업생명과학대학장, 이재욱 국제협력본부장, 김태균 글로벌사회공헌단장 등도 배석하여 서울대와 IFAD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